

『知的소유권이란 특별한
· 저작권 · 상표권 · 의창권
실용신안권은 無體재산권을
뜻합니다. 저작권이나
소유권자들의 중심이 돼 그
이유에 의해 문화유산을
영역의 행동대고, 더 나아가
개발아들여지는 실정아도
니까. 해서 그대의 심부
체함을 학부전문부와 연결
체제화시키는 작업의 필요
성을 절실히 학습을 단행
한부연구 발표회 · 초청강
사 · 법리사 등 전문담당자와
법관 · 저작권 · 경제학자 ·
공학자들이 교류 포함돼 있
고 있다.宋교수가 공부
했던 慶北大學에서는 강
좌를 통해 · 상표 · 저작권에
이러니고 고개 신분자를
을 정책, 법률이상의 사례
· 판례를 종합하는 등 실무
지향적 강의를 했다.

大學서 지적소유권 강의해야

특허·상표등 문화유산을 통해 발표회도



지적소유권학회장

宋相現씨



이만 있었지만 학습하고 그
전체를 법률·철학·경제·의학
학부전문부 연구한다기 접
에서 성격이 좀 다르죠. 지
적소유권의 관한 일반 인식
이나 전문연구가 부족했기
에 선진국의 사례를 개발업

계면 것임니다.『25만 원의
지적소유권학회 회장이중회의
서 초대회장이므로 선출된 법
학자 宋相現氏(서울대 교
수)의 설명이다. 50여 차례
회의가 열려진 발표자 · 번역
美 國 · 日 本 · 英 · 佛 · 獨

등 선진국 法大에서는 법적
부과 지적소유권강화를 해
오고 있다.宋교수가 공부
했던 慶北大學에서는 강
좌를 통해 · 상표 · 저작권에
이러니고 고개 신분자를
을 정책, 법률이상의 사례
· 판례를 종합하는 등 실무
지향적 강의를 했다.

『사회에서의 필요가 큰
만큼 학회의 연구와 강의의
실무를 접한, 배우고나면
그로써 학부전문부도 할수
있게 하길 의중.유니나라
에서는 82년도 대학학성의
외자도입 호시를 기록, 지
금까지 많은 사례를 거치면
서 이방법에 익숙한 실무체
재에 쌓았을 것이다.유니 학
회는 이런 실무체재화를 하고
· 체제적인 학부 연구
이를 다시 실무에 활용케 하
는 기기를 맡게 될것임니다
다. 아직 사무실의 정황지
지 않아 출판인 인정후 변
호사실(Defensor)을 맡
시 정관칙과 하고 있다.

【1】